

마태복음 22장,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22장은 주님과 대적자 간에 벌어진 "예루살렘 전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혼인 잔치 비유(1-14)는 21장에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의 연속인데,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짐"(13)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神學的)인 설명으로, 현대교회에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어서 대적자들이 주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한 세 가지 주제는 당시로는 민감한 사안으로 정치적인 문제(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하는가)와, 교리적인 문제(부활이 있는가? 어느 계명이 큰가)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을 물리치신 주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저들의 교활한 시험과는 달리 사활이 걸린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함으로 저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지적하십니다. 바른 그리스도관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신 본 장의 핵심적인 주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두 주제, 즉 바른 그리스도관과, 예복문제는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14)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둘째 단원(15-33)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

셋째 단원(34-46)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첫째 단원(1-14)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1).

1,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2) 하고 "혼인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절에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한 것은 혼인 잔치 비유가 앞에서 말씀한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의 계속이요, 더욱 진전된 내용임을 말해줍니다. "혼인 잔치 비유"는, 비유이기는 하지만 신학적인 많은 점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2, 첫째로, 천국은 장사(葬事) 집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잔치", 그것도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애곡"(哀哭)하는 장례놀이(喪禮)에, 주님의 사역을 "피리를 부는" 잔치에 비유(11:17) 하셨습니다. 율법 하에 있던 시대가 어찌하여 장례 집과 같은가? "죄"(罪)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 당하게 됨을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이 어찌하여 잔치가 되는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이 잔치가,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체자(主體者)인 "임금"은 하나님을, 잔치의 주인공(主人公)인 "아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시에 "아들의 복음"(롬 1:1, 9)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한 자들은 성도들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란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이란 신부이면서 동시에 청함을 받은 자(계 19:7-9)인 것입니다.

4. 임금은 종들을 보내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4) 하라고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보태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유는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상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준비하신 잔치인 것입니다.

#### 혼인잔치 비유의 중심점

1. 그러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혼인잔치 비유"의 주된 청중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와 같은 종교지도자들과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의도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오기를 싫어하여(3), 저희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5-6)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7) 했는데, 이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 문자적으로 응하여졌던 것입니다.

2. 둘째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11) 라는 묘사 속에 잔치 비유의 신학적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란 묘사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예복을 입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8-9) 손님들이 언제 예복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말인가? 이는 저들을 위해서 주체자인 임금이 예복을 준비해주었음을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만이 자기 옷이 임금이 마련해준 옷보다 더 좋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받아 입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3.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복"을 어떻게 마련해주셨는가?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롬 1:17, 3:21)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이의를 받아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즉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23),

즉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예복을 어떻게 마련해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24)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 3:21) 하고 말씀합니다. 죄는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기 위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사도 바울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유대인)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받아 입지) 아니하였느니라"(롬 10:2-3) 하고 말씀합니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함은 성경계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임기응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롬 3:21) 하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성경을 일컫는 말인데 구약성경을 통해서 언약과, 예언, 예표 등을 통해서 증거하신 바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롬 1:2) 합니다.

####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1.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쇠퇴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 64:6) 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사 61:10) 하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입혀 주셨다고 기뻐하며 즐거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주신 "예복"입니다.

2., 이 두 가지 원인, 즉 혼인 잔치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았으나 돌아보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의의 예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짐"(13)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라오디게아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계 3:17)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자교회 라오디게아교회가 왜 이지경이 되었는가? 강단에서 복음이 살아지게 된 연고입니다.

3. 이성 말씀 드린 바를 바울의 경우를 들어 조명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6) 자부하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예복"이 필요 없다고 거부하던 자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하고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 3:9) 하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그는 우리를 향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화두가 절실한 것인가? 의롭게 되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하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말씀하는 것입니다.

5.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면 우리도 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대교회에는 두 가지 사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칭의 교리도 부정합니다. 둘째는, 라오디게아교회가 별거벗은 상태가 된 원인을 성화로 보고 있는 사조입니다. 즉 교리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교훈에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도 윤리 때문이란 말인가? 실천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신율법주의가 되어 복음이 필요없는 양, 그렇지 않다 하여도 복음의 절대성을 약화시킨다면 결국 초록은 동색이란 말과 같이 대속교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사조와 같은 노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6. 이에 대한 시금석은 강단에서 이 칭의 교리가 힘있게 증거되고 있는가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인가의 여부는 칭의 교리에 서 있는 여부를 보면 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칭의 교리에 서 있지 않다면 현대 판 라오디게아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칭의 교리를 증거한 것은 언제입니까? 형제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외치는 설교를 들은 기억이 언제입니까? 형제가 섬기는 성도들은 모두 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15-46절, 주님과 대적자들 간의 진리싸움

둘째 단원(15-33)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15),

1. 주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줄 알고 잡고자"(21:45-46)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듣게 되자 절박감이 작용한 듯 합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16)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로마의 앞잡이들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들이 합세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모였던 것입니다.

2.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16) 하고 아부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17)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가하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앞에 나팔을 불어 매국노인 양 매도하고,"불가하다" 하면 당장 헤롯 당원들이 잡아가려는, "상론(相論) 끝에 궁리해 낸 음모였던 것입니다.

3.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21) 답변하십니다. 이는 기상천외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직답(直答)을 기대했으나, 주님은 정답(正答)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방어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셨다는 점입니다. 가이사는 "세금"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퀴리어스", 즉 주(主)로 경배받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되"(롬 13:7), "경배"는 하나님께 돌리라 하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1.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23),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패퇴(敗退)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족속으로 귀족계급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죽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성경보다는 인간의 이성(理性)과 합리적인 사고를 더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2. 이들이 들고 나온 것은 신명기 25:5-10절에 나오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24) 한 "계대결혼"(繼代結婚) 제도입니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다 이와 같이 계대결혼을 하다가 자식 없이 죽었고 여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

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28) 하는 질문입니다. 이는 꾀변입니다.

3. 이 제도의 중심점은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신 25:6)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이다"(롬 9:29) 한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언약의 성취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끊어짐이 없이 계승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백성들에게 "후사"가 없다는 것은 곧 언약에서 떨어져 나감을 뜻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후사를 끊으려고 얼마나 대적을 했던가?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심"(창 4:25)과 같이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후사의 귀중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계대결혼 제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4. 구약성경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29)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이다"(사 26:19)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부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단 12:2) 하고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5.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31-32) 하고 출애굽기를 인용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두개인들은 모세 5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언약을 세워 주신 족장들입니다. 언약 안에서는 죽었으나 산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다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히 11:13) 했다고 말씀합니다.

6.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은 오늘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문서로 여겨서 인간의 이성으로 "고등비평"을 가하여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되어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를 지혜있는 자로 자처하여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마치 해부하듯 하려는 자들은 "불신자"이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이 거듭 낫는가를 의심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7. 어찌하여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 성경이 한 분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구속사"임을 인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건물의 골조와 같은 뼈대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엡 3:9)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셋째 단원(34-46)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34),

1.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35) 합니다. 사두개인이 폐퇴하자 다시 바리새인들이 공세를 취한 것입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36)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 "시험하여 묻되"(35하) 한 것을 보면 신앙의 정통성을 테스트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37-38) 하고 답변하십니다. 이는 심명기 6:5절의 인용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39) 합니다. 이는 레위기 19:18절의 인용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40) 하십니다. 성경의 양이 방대하지만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인 "경건치 아니함"과, 이웃관의 관계에서의 죄인 "불의"(롬 1:18),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죄에 있어서도 "경건치 아니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려 했던 율법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자신이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사랑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사는 바로 율법의 범법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약 2:10).

자신을 시험한 율법사

1. 이제까지 주님은 공격을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42상) 한 "그리스도론"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인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니

다. 그리하여 제자들까지도 좌우 자리를 놓고 다투었으며, 부활하신 후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2. "다윗의 자손이니이다"(42하) 하고 대답합니다. 이는 맞는 말이면서 틀리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롬 1:3),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마 5:2),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43-45) 하십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46) 합니다. 진리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죽이기 위한 저들의 남은 방법은 음모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4. 주님은 시편 110:1절을 인용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재림하심으로 성취될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26:64) 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첫 설교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4-36) 하고 증거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증거인가? 얼마나 힘있는 증거인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롬 8:34-35)!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만큼 알지를 못하는 데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아느냐?".